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관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 임시교사 단기교육 실시

### 7주 교육 마친후 정교사 자격증 수여

교회는 교회학교 교사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보다 실력있는 교사상을 정립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교사들을 위한 단기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4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7주간 매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2시간씩 총 14강좌를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교육을 마치면 '정교사자격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이 교육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고 주일성수를 강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교회학교 교사 중 임시교사는 이번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내년부터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교사로 임명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런 특별교육을 통해 정교사의 자격을 가져야 내년도에 교사로 봉사할 수 있다.

교육은 구원론 4시간, 예배론 2시간, 교사론 4시간, 상담론 4시간이고 필독도서 7

권을 읽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 중 신약성경을 일독해야 한다. 이번에 훈련

받아야 할 대상은 300여명에 이른다. 교과목 및 강사는 별표와 같다.

## 단기선교훈련생 모집

태국으로, 8월 2일 - 11일(9박 10일)

선교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해외선교를 위한 선교단기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선교지를 방문하여 한국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견학하고 직접 선교활동에 참여하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도전 을 받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충현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선교 참여자의 확대를 전교회적으로 선교부흥의 계기가 되도록 선교위원회에서는 등록교인 중 선교에 관심있는 자 및 선교헌신자, 충현 교회 청년, 대학부 회원 및 선교회원을 대상

으로 단기 선교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태국 북쪽과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차앙마이와 우돈타이 지역으로 최근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태국에서도 소외지역으로 현지 목회자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다.

모집인원은 42명인데 대원 30명, 의료진료팀 6명, 이용원팀 3명, 본부요원 3명으로 경비는 1인당 80만원으로 교회에서 개인당 30만원씩 보조해 줄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모집안내서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금 10만원과 함께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5월 8일(주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신청자는 5월 12일(목) 오후 7시 베다니홀에서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확정되면 11주간 동안(매주 목요일 저녁) 예비훈련을 받고 파송된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전화 552-8200) 교환 357번)로 하면 된다.

### 김상순 권사 회장에 피선

제23회 수도여전도회 연합회 총회에서



제23회 수도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지난 4월 4일(월) 우리 교회당에서 열렸다. 오전 10시에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의 총회는 충현교회 당회장 신성

종 목사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으로 '당나귀 인생'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열린 회무처리 및 신임원 선거에서 우리 교회 김상순 권사가 임기 2년(1994. 4. ~ 1996. 4)의 회장에 피선됐다.

### 충현전도대 훈련 시작

매주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충현전도대가 지난 4월 3일(주일) 오후 3시 30분 각 전도회 회장단 및 전도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갈릴리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1994년도 충현전도대 훈련을 시작 했다.

충현전도대 훈련은 매년 초에 실시하며 한해 동안 교회의 전도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6월 5일까지 10주동안 실시하는 충현전도대 훈련은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모여 참석대상은 각 전도회 회장단 및 전도부장과 전도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회망자들이다.

| 시간<br>날짜 | 과목  | 1교시 (오후 18:20~19:20) |        | 2교시 (오후 19:30~20:30) |        |
|----------|-----|----------------------|--------|----------------------|--------|
| 4/17     | 구원론 | 인간의 타락과 범죄           | 성봉환 목사 | 하나님의 구원계획            | 성봉환 목사 |
| 4/24     |     | 중생의 신비               | 김광국 목사 | 구원의 확신               | 김광국 목사 |
| 5/1      | 예배론 | 올바른 예배관              | 장경철 목사 | 주일성수의 원리와 삶          | 장경철 목사 |
| 5/8      | 교사론 | 교사의 자질과 자기관리         | 장우천 목사 |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 장우천 목사 |
| 5/15     |     | 신입반 운영과 관리           | 홍창민 목사 | 영적성장과 성숙             | 홍창민 목사 |
| 5/22     | 상담론 | 교회교육과 상담             | 김희수 목사 | 인간이해와 발달심리           | 김희수 목사 |
| 5/29     |     | 성경적 상담원리             | 장봉생 목사 | 커뮤니케이션               | 장봉생 목사 |

## 금주의 청지기 훈련 및 연속기도

청지기훈련 - 4월14, 15일 양일간  
24시간 연속기도 - 9교구와 10교구

94년도 청지기 훈련이 시작됐다. 금주의 훈련 해당자는 14일(목) 오후 6시 30분까지 교회에 집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명찰 및 훈련복을 지급받고 인원점검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오후 7시 30분에 기도원행 버스를 타게 된다.

충현기도원에 도착하여 오후 9시부터 저녁집회가 시작되어 다음날(금요일) 오후 4시에 수료식을 하고 4시 30분에 기도원을 출발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준비물은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세면도구, 복장은 충현훈련복에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접수는 사무국에 비치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23일에 시작한 94년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는 금주에는 9교구가 12일 오전 7시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10교구가 이어서 하게 된다.



부활절 축하음악예배 지난 주일(4월 3일), 부활절을 맞아 교회는 온통 부활절 축하 분위기 가운데 보냈다. 오전의 각 교회학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각종 부활절 행사를 실시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각 교구별 모임 시간을 통해 부활절 축하 및 교구내 전도회별 찬양대회를 갖는 등 부활절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찬양예배는 실로암 찬양대가 특별히 준비한 바하의 부활절 칸타타 '무덤속에 계셨으나 주는 부활하셨다'를 연주 함으로써 참석한 모든 교우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다.

마

태는 26장에서 마리아의 충성(6-13절)과 가롯 유다의 반역(14-25절), 마리아의 순결함과 가롯 유다의 더러움을 대조해 가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2절에 보면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예고했고, 본문에서 그의 배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할 때에 가롯이라는 말은 유다의 한 고을이름으로서 그의 출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이름은 우리들의 이름처럼 성과 이름이 구별있는 것이 아니고, 또 미국사람들처럼 first-name, middle-name, last-name 하는 식의 구별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의 출신을 중심으로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할 때에도 앞에 나오는 가롯이라는 말은 성이 아니라 그의 출신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 1.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하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는 예수님께 민족해방자로서의 기대를 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가롯 유다의 기대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고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예고를 거듭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롯 유다가 듣기에는 실패에 대한 예고처럼 들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배신의 마음을 갖게한 첫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며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때에 모든 제자들은 조용하게 주님의 책망을 받아 들였지만 가롯 유다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것이 두번째 동기이고 셋째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도 나오듯이 그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탐욕입니다. 항상 그는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위험이 점점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대로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실리를 추구하는 가롯 유다에게 있어서 제자로 남아있었다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2. 유대지도자들에게 가롯 유다의 반역이 필요했던 이유와 은 삼십에 팔리심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롯 유다의 반역이 필요했던 이유는 첫째로 민란을 피하고 비밀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 당시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저항이나 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내부의 어떤 사람과 공모를 하게 되면 비밀히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잡아서 처단한 후에 후유증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명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명분을 찾고 있던 그들에게 가롯 유다의 배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천만 뜻밖의 너무나도 귀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은 삼십에 팔리시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은 삼십이라는 것은 삼십 세겔을 말합니다. 세겔은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은화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노예 하나의 값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 소가 받거나 어떻게 하다가 남의 집 노예를 그만 과실로 죽이게 되었을 때, 즉 과실치사로 죽었을 때에 바로 은 삼십 세겔을 지불했습니다(출 21:32). 그러니까 노예의 값, 그것도 법적으로 지불되는 값인 굉장히 낮은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 3. 가롯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첫째로 가롯 유다는 지성인입니다. 가롯 유다가 얼마나 지성인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가 회계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나, 또 그가 얼마나 이론이 정연한 사고를 했는가 하는 이 두 가지만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돈에 팔게 되면, 지식이 도구로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집니다. 둘째로 가롯 유다는 열심쟁이입니다. 그는 열심

충현장단



# 가롯 유다의 반역

(마 26:14-25)



신 성 중

<목사·당회장>

당원(셀롯:Zealot) 출신입니다. 이 열심당원 출신들은 무력으로, 칼을 가지고라도 로마에 대항해야 한다는 극렬분자들이 만든 당인데 가롯 유다는 그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가 그가 얼마나 열심이 많았는가 그의 출생지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열한 명이 다 예수님의 선교 중심지였던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만이 유다 지역에 있는 가롯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셋째로 그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품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중들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잘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위선이었다는 점입니다. 넷째로 가롯 유다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에 결국 황금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소위 탐욕, 금송아지의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 엘리사의 종이었던 개하시,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 등등 많은 사람이 모두 돈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돈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마침내 도적질을 하거나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또 돈돈 하면서 황금만능주의에 빠지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요하게도 마옵소서"(잠 30:8)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섯째로 가롯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서는 유다를 가리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훼방죄입니다. 이 성령훼방죄 외에는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훼방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 4.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우리는 오로지 한마음으로 늘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로지 한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지나 여러분은 오로지 한마음, 늘 위를 바라보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로 돈은 인간이 사용하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은 인간이 사용할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죄라는 것은 다양하지만 그 뿌리는 이기주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죄는 집단적이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보면 이기심입니다. 나,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넷째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경향성에 굴복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에게서는 질투심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욕망이라는 경향성이 있었으며 또 가롯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향성에 굴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경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스스로 알고 극복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인간의 머리와 가슴에 나쁜 생각을 넣기는 쉽지만 빼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금통에 돈을 넣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을 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넣은 돈을 뺄려고 하면 잘 안됩니다. 열쇠로 연다든지 부순다든지 해야 돈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머리와 가슴에 나쁜 생각을 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을 빼내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열쇠로, 오직 십자가의 열쇠로 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내 마음속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십자가의 열쇠로 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 과학의 한계

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능력을 가지고 그 동안 연구와 발전을 거듭하여 그야말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가진 이 창조의 능력은 언제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워싱턴대학의 메디컬센터 연구실에서 인간의 배자(엘브리오)를 복제하는 데 성공하여 이제는 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인간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인류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주셨지만 과학이 창조질서와 그 한계를 벗어날 때 후람케슈타인처럼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글 / 신성중 목사

## 세례를 받고 나서

## 거듭 태어남을 감사드리며

윤 병 식

(제11교구)



지난 92년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석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42년간 세상살이에 물들어 왔던 삶을, 그날부터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그 삶을 고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입으로만 예수님을 찾고는 또 세상속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삶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욱더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어보기로 작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란 말과 같이 시작하기가 어렵지 예수님 말씀을 읽다보니 하루에 3장이 아니라 10장, 20장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나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점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저의 마음 속에 계시니 주님의 능력으로 제 속에 남아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과 버리지 못한 것, 자리잡고 있는 마귀를 내어 쫓아 주세요" 기도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내가 졸라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그곳에 가기를 권해서 간 곳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우연히 새가족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나 혼자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읽어보던 예수님 말씀을 그곳에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첫번째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조금씩 교회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지난 나 자신의 삶을 더 뚜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학습을 받았습니다. 학습문답을 할 때에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과

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청년2부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하였고, 교구모임, 전도회모임, 교사양성부 등등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고 거리가 멀어서...'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멀어진다'는 생각으로 매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 주시는데 시간과 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94년 3월 25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엄숙하다 못해 성스러운 세례식에서 저는 당회장 목사님의 축도를 들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 성찬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 태어남을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며 조금도 뉘우침이 없도록 좋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 예수님의 빈무덤

이 형 주

(권사, 제17교구)



부활의 새아침을 맞이하여 새삼 예수님의 빈 무덤이 생각납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의 본체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 주님은 그 짧은 생애 속에서도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삼년 전에 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주님의 빈 무덤 속에 갔을 때 나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열네번이나 쓰러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빈 무덤을 역사속에 남기신 채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천국열쇠를 가지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때 내 귀에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너를 위해 나 자신을 바쳐 희생했던 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제 내 빈 무덤을 확인했으니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거라' 하시며 주님의 영음(靈音)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빈 무덤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 음성으로 나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역사 속의 인물로서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과거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고 주님과 관계가 그동안 어떻게 맺어 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복음의 사역자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왜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순교하는 정신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젊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면서까지 선교하시는 주님의 종들의 그 위대한 신앙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종들이 삶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가진 참종이 되어 하늘의 금면류관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명감에 불타 인도네시아, 독일, 이스라엘, 홍콩 등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자들의 선교대회가 지난해 9월에 열렸을 때 나는 선교지의 현황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망정 부활의 주님을 이 4월이 다가기 전에 내 이웃, 내 집 근처에라도 다니면서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어 봅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는 믿음의 자세를 다짐하면서 용서 받기보다는 용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빈 무덤의 증언자들이 됩시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과거보다는 현재 신앙의 재관장이 되신 부활의 주님께 항상 열납될 수 있도록 영성훈련에 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됩시다. 낮아진 모습 속에서 섬기는 자세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총현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우리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심령속에 영원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 ♣ 징검다리 ♣

## 주님, 이 기도 들으시고 .....

유 창 무

(목사, 총현기도원 지도)



매 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원에서 금

요연합구국기도회가 있다.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는 시간인 밤 10시에 총현교회 앞 마당에서 많은 버스가 교회를

출발한다.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더욱 부르짖고자 기도원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과 성남, 이천, 광주 멀리 평택에 사까지 우리 기도원을 찾아 오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와대에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점점 더해가는 기도의 열기, 점점 많아지는 기도의 행렬, 예배실이 좁아서 콩나물 시루처럼 뿔뿔해도 기쁨으로 모이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원의 찬송과 기도의 열기는 휘발유를 부어놓고 불을 지핀 것과도 같다.

이젠 목요일에도 특별기도회를 시작했다. 교회에서 밤 9시에 차량이 출발하여 밤 10시에서 11시 30까지 진행된다. 그렇게도 빠르게 살면서도 기도의 사명을 갖고 계속 들어오는 목요일 기도회를 보며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서는 어떠할까?

모일 적마다 회개의 눈물, 모일 때마다 기쁨의 찬양

주님! 이 기도 들으시고 남북이 복

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마다 성령충만하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도 들으시고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화평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또한 하나님의 오른 팔에 품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한낱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직 이 뜨거운 기도의 대열에 한번도 참석해 보지 않았던 성도님들, 한달에 한번이라도 모두 동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

## 주차장 새로 마련

주일 내내 주차하는 차량은 이곳으로!

제2교육관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주일에 배 때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교회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회 우측에 대지를 마련하여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다. 새로 신설된 주차장은 교회 동문(교육관) 정면에서 우측으로 교회를 끼고 돌아가다가 오른편 공터(그림 참조)로 7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아침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주차하는 차량들은 이곳에 주차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그 외에 교회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즉시 교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 주차장은 주일 내내 교회에 있는 장로와 안수집사의 차량은 필히 주차하기를 바라며 '장안주차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와 당회장 목사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님 :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평안하게 귀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더욱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 12(화), 13(수) 제45회 수도노회 참석(한광교회)  
· 신성종 목사님 : 11일(월)-16일(토) 길림성 기독교신학원 설립 협의 및 답사
2. 충현 교회학교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소서.
3.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4. 대통령 내외분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사 국정을 잘 살피게 하소서.
5.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의 축복이 충만케 하소서.
6. 한반도에 핵의 위험이 없게 하시고 죄악의 세력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사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 ● 부서를 찾아서 / 탁아부 ●

# 부모가 예배 드리는 동안 아이를 맡아 교육하는 곳

아기와 교사가 함께 예배, 아이 보는데 탁월한 교사가 많아

대부분의 교회가 다 있는데 우리교회만 없는 것이 있다.

많은 교회들의 본당 끝이나 좌우측을 보면 유리벽을 한 유모자실이 있어 그곳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유모자실은 조그만 개척교회까지도 거의 모든 교회가 갖추고 있다. 그만큼 예배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그런 유모자실을 찾게 되지만 찾지 못하고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필요 때문에 교회는 본당을 완공하면서 교육위원회 산하에 '탁아부'라는 부서를 신설했다.

주일의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곧 이어 주일 I부 예배와 고등부 I부 예배 등이 시작된다. 찬양대원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서서히 불비기 시작하여 주일 I부 예배가 끝나고 II부 예배와 교회학교가 시작되는 오전 9시 경에는 밝고 즐거운 복잡함으로 온통 휩싸인다. 이런 분위기는 IV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 바쁜 발걸음속에 반가운 인사, 심각한 대화, 각 집회실에서 찬송과 기도소리 등으로 이어져 주일은 이 거대한 건물이 하루종일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본당 지하 베들레헴홀의 탁아부 실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마치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새로운 세계에 온 듯한 생각을 갖게 한다.

나이 지긋하진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팔에 또는 등에 어린 아이를 안거나 업고 있는 한가로운 모습, 아직 한 살도 안된 아이들이 조그마한 침대 속에서 세근세근 자는 모습, 옆방에서는 조금 큰 아이들이 장남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는 등 조용하고 평화롭고 한가한 모습이 갑자기 눈앞에 전개된다.

이번 주에는 아주 어린 아이부터 만 3세까지의 아이들을 맡아 예배시간에 탁아일을 하고 있는 탁아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탁아부는 주일예배를 위해 어린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있기에 탁아부는 매 예배시간 전후가 가장 복잡하고 붐비게 된다.

어린이를 맡기러 오는 부모들이 탁아부 실에 들어오면 안내교사가 마이크로 그 아이를 맡을 교사를 지명한다. 교사가 나와서 어린 아이의 명찰을 확인하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간다. 처음에는 울고 보채던 아이들도 어린 아이 보는데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선생님 손에 안기면 금방 울음을 그치는 일들도 많아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기고 간다. 한번 어린이를 맡긴 사람은 계속해서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도 매 주일 어린 아이를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된다.

이렇기에 탁아부에서는 어린 아이 교육 문제가 대두되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아이 보아주기' 정도의 생각이었지만 부모의 사정상 어린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육을 하는 영아부에 출석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맡기는 어린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예배 및 탁아교육 문제가 제기되어 탁아부는 자체내의 유아교육 과정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우선 주일예배 시간에 맞추어 탁아부에서도 교사와 어린 아이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천국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예배 교육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배가 끝난 후 간식시간, 비디오상영, 놀이 시간 등이 진행되는 유아교육용 교재를 가지고 개인별로 어린이

◀ 처음에는 울고 보채던 아이들도 어린아이 보는데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선생님 손에 안기면 금방 울음을 그치는 일들도 많아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기고 간다. 한번 어린이를 맡긴 사람은 계속해서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도 매 주일 어린 아이를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된다.

와 함께 놀며 학습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탁아부실 곳곳에는 전문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놀이기구와 학습용 교재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선생아는 별도로 관리하고 12개월 미만은 병아리반, 12개월 이상 어린이는 사슴반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40, 50대의 집사·권사님들로 구성된 교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보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왜 탁아부 교사를 하느냐? 탁아부 교사가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교사들은 "뭔가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고 하나씩 기동력있는 일보다 탁아부 교사를 자신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들기도 하지만 이미 자신의 자녀들은 키워본 경험들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저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일 같지만 부모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고 먼저 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요계베틀의 심정, 로이스와 유니게의 심정으로 돌본다.

아기들이 어려서 표현은 못하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서 평안함과 만족함이 느껴질 때면 참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라고 대답했다. 교사들은 한결같이 어린 아이를 맡아 줌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었다.

사실 어린 아이의 출생에서부터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 들어가기까지 5-6년의 기간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영적인 불모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 나와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집에서도 성경찬양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을 5-6년 가져야 하기에 참으로 답답한 가운데 보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마음 놓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되기에 탁아부 운영은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은 한 아이에 한 교사가 감당해야 하기에 탁아부 교사는 맡기는 어린이 숫자만큼이나 된다. 현재 150-160명의 교사가 주일 II-IV부 시간내내 대기하면서 어린이를 돌보고 있다. 가끔 예배시간에 어린 아이가 울거나 보채므로 부모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예배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본다. 탁아부에서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부모님들이 탁아부에 자녀를 맡기고 더욱 정숙하고 경건하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부탁하고 있다.

현재 탁아부는 부장 강도용 장로, 지도에 변준옥 전도사, 부장 최윤덕 집사, 민순애 권사와 150여명의 교사가 매주 각 예배시간에 100-150여명의 어린이를 맡아 수고하고 있다.

매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전체가 모여 기도회로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어린 아이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로 탁아봉사에 임하고 있는 탁아부 교사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어떤 어린이든지 맡기지만 하면 잘 돌봐주겠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떨어지기 싫어 울고 불고 하는 어린이들도 일단 부모를 떨어지면 이내 적응을 하며 나중에는 더 놀고 싶어할 정도이다."라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교사들의 자신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또한 한번 맡긴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를 맡기고 찾아가며 '고맙다'는 말을 거듭 뇌이는 모습에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신뢰함이 가득히 느껴졌다. <형>